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 6월 28일 월요일 잠언과 함께 그와 맞는 잠언들을 같이 보냅니다.
수요말씀 방향과 맞춰 특별히 따로 보내는 잠언입니다.

1.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의 존재 세계로 창조하셨다. 시간에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몇 시에는 밤이 되고, 몇 시에는 낮이 되게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인간도 시간과 함께 존재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시간을 빼앗기면 존재함도 빼앗기게 된다.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면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만큼 존재하지 못한다.
2.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시대적 중심인물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 전초자들이다. 중심인물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따라 그들의 수준으로 말씀의 전초가 되면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는 여자가 성장하여야 그에 따라 상대적인 남자가 출현하는 격과 같다.
3. 인류는 전진 역사다.
4. 하나님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차원을 높여 가면서 섭리하셨다. 차원을 높일 때는 그 시대에 합당한 자를 미리부터 택하여 기르고, 주님의 수준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 먼저 실행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통해 모든 자들에게도 그같이 가르쳐 말씀으로 시대의 수준을 높여 행하게 하셨다. 사명자들을 통해 수준을 높여도 전환은 못 한다. 전환은 하나님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구약-신약-성약이다.
5.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서 시대의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그 시대 뜻을 땅에서 펴지 못하여 사람들의 육신이 행치 못하게 되어 그 영들이 수준

높여 살지 못하고 그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유권대 남자는 지식과 사랑이 다 성장되었는데, 여자가 육도 정신도 성장되지 않으면 남자의 수준의 사랑에 따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 고로 시대에 따라 반드시 중심자를 통해 말씀을 주어 수준을 높여 준 후에 오신다.

6.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 전에도 지구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지만 그 정신과 문화 수준이 마치 1세~6세가 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 구원역사를 펼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 때 겨우 한 마디씩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비유권대 많은 여자들이 있다 하자. 그런데 다 어린아이라 하자. 한 남자가 사랑의 역사를 하고 싶어도 아직 젖 먹고, 기어 다니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일어서서 걸어 다니더라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그러했고, 아담과 하와 때도 완전히 원주민들이었다. 고로 더욱 하나님의 뜻이 깨지게 된 것이다.